

## 한국 사회의 '정보화'와 언론학 연구의 과제

강상연

(연세대 교수·언론학)

### I. 문제의 제기

'정보화'는 어느새 우리 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주요 담론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 언론학계의 관심도 날로 증대되고 있다. 실제 그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들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7년과 1998년은 '정보화'와 관련된 학계나 그 구성원들의 대응 양태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이 적지 않게 가시화된 기간이기도 하다.

우선 한국언론학회 소속 사이버커뮤니케이션 분과가 활동 개시 1년여만인 1997년 11월에 독립된 학회로 확대·발전하였는가 하면, 한국언론학회 역시 1998년 4월에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정보화'관련 주제들을 망라하는 대규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방송학회 역시 정기학술대회외에 이 기간중 개최한 각종 세미나의 절반 이상을 뉴미디어 혹은 디지털 시대의 방송 현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룬 바 있다. 심지어는 "우리 언론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대중의 언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우리 언론의 민주화, 우

리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학술운동단체”임을 표방하던 한국사회언론연구회도 “미디어 융합과 디지털화, 쌍방향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은 우리 연구회의 조직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1998년 4월 한국언론정보학회로 확대·개편하는 변화를 보였다.<sup>1)</sup>

학회 차원의 이러한 조직 및 활동의 외형적인 변화외에도 실제 이들 언론학관련 연구단체들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정보화’관련 논문들도 1997년과 1998년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과 뚜렷이 구분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석·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들도 이러한 전반적 경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3년 사이에 각 대학에 신설되는 유관학과들에 ‘정보’ 혹은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명칭들이 붙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기존 학과의 명칭에서도 일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sup>2)</sup>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기존의 언론학 혹은 신문방송학의 관심 영역이 ‘정보’ 영역으로도 크게 확장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일종의 ‘학문적 영토확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학계 관심 영역의 단순한 확대 혹은 전이라고 할까? 왜 이러한 변화가 현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한 폭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확대 혹은 변이의 불가피성

1) 한국언론정보학회 창립대회(1998. 4. 11) 자료 참조

2) 언론정보학과(학부), 방송영상정보학부, 다중매체영상학과, 멀티미디어학과(학부), 정보방송학과, 사회정보학과(학부)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정보화' 현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보여온 국내 학계의 지적 관심이나 현실적 관여는 이론적 측면에서나 방법론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공인받을 만큼 제대로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의 전도는 언론학 혹은 보다 확대된 새로운 학적 체계의 발전으로 낙관할 수 있는 것인가?

최근 '정보화' 문제에 대한 연구 관심의 증대나 연구 성과물의 실질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언론학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된다. 특히 보다 최근에는 인접 인문사회과학에 속하는 여러 방계학들이 각기 나름의 이론적·방법론적 토대위에서 본격적으로 '정보화'에 눈길을 돌리는 사이에 언론학은 '정보화' 문제와 관련, 어떤 지적 전통과의 연계속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합당한 것인지를 되묻게 된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언론학의 연구 관심영역을 넓히면 넓힐수록 전통적인 학문간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언론학의 정체성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 '정보화' 문제가 언론학의 독점 영역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이미 그런 것이었지만 앞으로는—지금까지처럼 계속 한다면—그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보화' 문제를 언론학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냐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정체성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언론학계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보여온 지적 관심과 쏟아져 나온 각종 연구 성과물들이 전체적으로 일견 체계 없는 '지적 방사(放射)'처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 글은 우리 사회의 '정보화' 과정속에서 국내 언론학계 혹은 소속 연구자들이 그에 대응해온 그동안의 연구성과나 지적 관여 행태들을

되 돌아보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언론학의 학문적 정체성 문제나 학술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여를 했고 또 어떠한 흠결을 지니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평가해보려고 한다. 또한 그간의 연구들이 우리 사회의 담론화된 발전 명제의 하나인 '정보화' 자체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보려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평가 없이는 향후 '정보화'의 진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속에서 언론학 자체의 정체성은 물론 학적 체계의 견고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당한 방향설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II. 사회과학으로서의 언론학과 '정보화'<sup>3)</sup>

언론학이 '정보화' 테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각종 뉴미디어/멀티미디어 등의 출현 및 그것의 사회적 이용이 크게 증대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사회현상의 중요한 한 측면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언론학은 그 나름의 광범위한 연구대상이나 연구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면서 연구 대상이나 영역을 확장하거나 변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초기 신문매체에 한정되어 있던

---

3) 여기서 '정보화'란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의 개발이나 수용, 보급, 이용 등과 관련된 제 현상의 과정과 결과"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언론학계의 '정보화'관련 연구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매체(뉴미디어나 멀티미디어)를 대상으로 하거나 그와 주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연구를 말한다.

언론학 연구는 그 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매체의 등장에 따라 연구영역이 점차 확장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분과 과학으로 발전해 온 도정을 보여주고 있다(Williams, et al., 1988: 17-19; Rogers, 1986: 110-113).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에 의해 새로 등장하는 다양한 매체들에 새로운 연구관심을 쏟고 그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분석·평가하는 언론학의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언론학 연구는 당대에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이용되는 주요 매체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일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처럼 매체연관성이 강한 언론학이라 할지라도 사회과학으로서의 언론학을 말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매체 자체에 관한 연구를 넘어 매체의 사회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이 주된 관심사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학이 '매체'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매체 역시 복잡한 '사회적/역사적 맥락' 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특정시점에서 특정매체가 개발·보급·수용되는 배경과 그 과정은 물론 그러한 매체 혹은 그것을 경유하는 메시지가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규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수준의 복잡한 사회적 변인들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언론학이 '정보화'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속에서 어떠한 변인들이 작용하여 '정보화' 및 그와 연관된 기술, 혹은 매체의 개발·수용·확산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결과가 야기 또는 예상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언론학의 정체성을 옹위할 수 있는 본령이 커뮤니케이션 현상

에 대한 분석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때, '정보화'와 관련된 언론학 연구 역시 새로운 매체의 등장·확산·이용이 개인, 조직, 지역, 국가 혹은 범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정보전달이나 의사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변화 또는 유지와 맺고 있는 관계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심적 과제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간의 정보전달이나 의사소통 양식은 물론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과 이를 넘어서는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심대한 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 논의 이전의 언론학 연구가—이를 단순화시킨다면—주로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매스미디어 중심의 연구로 대별되어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산물과 방법론이 '정보화'와 연관된 새로운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환경속에서 지닐 수 있는 유용성과 한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과거의 언론학 연구 전통으로부터 이론적·방법론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부분과 새로운 매체환경의 연구에 적실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이 필요한 부분(혹은 상호 접합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가름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 현상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의 창출을 통해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학문 영역보다 학제적 성격이 강한 언론학은 이론적·방법론적 관점에서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넘어 '다원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양승목, 1998: 71).

이는 언론학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동시에 언론학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정보화'에 대한 국내 언론학의 그간의 지적 관심과 대응에 대한 평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그동안의 관련 연구들이 국내 '정보화'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 사회과학적인 언론학 연구에 충실했는가, 언론학 연구의 본령인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는가, 새로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방법론적인 논의가 충분했는가 등을 통해 '정보화'와 마주하는 국내 언론학 연구가 처한 현주소의 일면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 III. 한국사회의 '정보화'와 언론학 연구

#### 1. 한국사회의 '정보화'와 뉴미디어 서비스의 확대

우리 사회에서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전자계산기로서의 컴퓨터나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언어 혹은 프로그래밍과 같은 기술·기능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대학의 전산학과나 상업계 고등학교, 사설학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컴퓨터의 개발·보급과 이의 광범위한 이용을 전제로 한 산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정보화'라는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강상현, 1996: 219-249).

1983년 당시 5공 정부는 1982년에 시작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소급 수정하여 ‘정보산업 육성’, ‘국가전산능력 극대화’, ‘컴퓨터 마인드 확산’을 목표로 한 ‘정보산업의 해’를 선포하게 되었다. 정부가 정보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지정하면서 이와 관련된—주로 대기업체에 대한—대대적인 지원과 홍보를 강행함에 따라 이 때부터 우리 사회는 이른바 ‘정보화’의 물결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에는 정보산업체들이 주로 컴퓨터 단말기를 조립생산하거나 각종 주변기기를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거나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단말기로서의 컴퓨터 보급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는 이러한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여 호스트 컴퓨터에 축적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의 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이벤트가 국내에 유치된 것을 계기로 정보통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형성되었다. 이 기간을 전후해서 비디오텍스 서비스가 개시되고 이는 점차 PC통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7년 정부는 전국전화 자동화와 전화 1천만 회선 돌파를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이 해를 ‘정보통신의 해’로 지정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추진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88년은 ‘정보문화의 해’로 지정되어 이 때부터 국가 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정보화’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 해에 정보문화운동의 추진을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정보문화센터와 정보산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정보문화협의회가 구성되고,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각종 전시회, 세미나, 경진대회는 물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주도하였다. 1991년에는 전국 8개 지역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2년에는 범국가적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자 했다.

정부 주도의 이러한 '정보화' 드라이브는 1990년의 '정보사회 종합대책', 1994년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 그리고 1996년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의 발표로 이어지면서 '정보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미래 청사진이 국민 앞에 계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신문업계는 1985년 CTS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5년부터는 인터넷의 WWW에 의한 동화상 전자신문 서비스와 동화상 뉴스전광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방송업계는 문자다중방송(1989년), AM스테레오방송(1994년)은 물론, 다채널 케이블TV(1995년)와 위성시행방송(1996년)의 실시에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디지털지상파 방송(2001년 본 방송 개시 예정)을 비롯 보다 다양한 방송·통신간 경계역 서비스도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비약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통신산업의 경우 1980년대에 이미 무선호출서비스(1982년)와 차량전화서비스(1984년), 그리고 개인용 휴대전화서비스(1988년)를 개시한 데 이어, 1997년을 전후해서는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주파수공용통신(TRS), 개인휴대통신(PCS), 무선데이터통신 등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 한편, 2000년대 초 쌍방향 화상데이터서비스(IVDS)와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제공은 물론 2010년경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한 첨단정보통신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컴퓨터 통신의 경우는 PC의 급속한 보급과 PC통신 가입자의 급증에 따라 새로운 다기능 매체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90년 말만 해도 40만대에 불과하던 PC보급이 1998년 현재 1,000만대를 넘어섰고 PC통신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sup>4)</sup> 물론 그 사이에 각급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와 그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수용하고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요컨대 국내의 '정보화'는 정보산업의 육성이란 목표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정부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홍보전략에 의해 '정보화' 마인드가 사회 전반에 이식·확산되는 과정을 밟아왔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초기 컴퓨터 단말기의 보급에서 시작해서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과 확장에 따른 컴퓨터 통신 인구의 증가는 물론, 신문·방송·통신계의 다양한 뉴미디어 서비스의 개발·보급·이용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정부의 '정보화' 정책 드라이브와 기업체들에 의한 정보의 산업화 및 산업의 정보화 추세, 그에 따른 각종 뉴미디어의 수용·개발·보급 확산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회구성원의 수적 확대와 그들 상호간의 네트를 통한 보다 빈번한 접촉과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문화적인 삶의 양식에 있어서의 변화 등등... 이러한 것이 학계의 새로운 연구과제로 주목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

4) 1998년 9월 현재, 국내의 PC통신 및 인터넷 가입자는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PC통신 가입자는 4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접속 서비스 가입자는 약 4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12쪽).

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국내의 사회과학계에서는 언론학자들이 이러한 현상 혹은 변화를 설명하는 데 가장 발빠른 대응을 하였다.

## 2. 뉴미디어와 국내 언론학 연구에서의 초기 대응

국내 언론학계에서는 '정보화' 테제가 주로 '뉴미디어'라는 이름을 빌어 수용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그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표방해오던 언론학 연구의 학술 관행으로 봐서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국내 언론학 연구는 대부분 신문과 텔레비전 등 매스 미디어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정보화' 정책이나 이로 인해 국내에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컴퓨터와 컴퓨터통신 그리고 신문, 방송, 통신계 각종 뉴미디어는 매스 미디어 중심의 연구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 셈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등장한 출판물들은 주로 뉴미디어 일반이나 특정 뉴미디어들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나 외국의 기술개발 동향 및 보급·이용 현황을 소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관련된 외국의 서적이거나 논문들을 번역 혹은 편집하여 출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5)</sup>

5) 예를 든다면 단행본의 경우, 손룡(1984)의 『뉴미디어론』; 럭키금성그룹(1984)의 『뉴미디어』; 통신정책연구소(1985) 번역·출판의 『뉴미디어백서』; 통신정책연구소에서 1985년부터 계속 번역·출판한 통신정책총서들(예: 『정보경제』, 『정보시대의 도래』, 『뉴미디어사회』, 『정보네트워크사회』 등); 이환의(1985)의 『뉴미디어총론』; 손룡 외(1987)의 『텔리커뮤니케이션론』; 김우룡(1987)의 『케이블TV원론』; 원우현(1988)의 『현대미디어론』 그리고 일부 외국 정보사회론자들의 단행본 번역물들을 들 수 있고, 논문으로는 손룡(1983)의 「통신위성에 관한 일고찰: 현황과 기술적 측면을 중

이러한 간행물들을 통해 학계에서는 뉴미디어에 대한 개념적 이해, 외국의 기술 및 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이른바 '정보사회')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이해 등 뉴미디어와 관련하여 새로운 관심을 쏟을 수 있는 하나의 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언론학이 '정보화' 문제를 보다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초기에 상당히 좁혀 놓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우선 이러한 초기 간행물들은 새로운 매체 기술 그 자체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 이를 단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 후 언론학에서의 '정보화' 혹은 뉴미디어 연구를 지나치게 매체의 기술적 특성이나 현황 그리고 그로 인한 정보사회 도래론으로 연결짓게 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즉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서의 뉴미디어 기술이 지니는 특징점들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그 사회적 결과로서의 '정보사회'가 관념적으로 미화·예찬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뉴미디어 기술 자체에 집중된 초기 논의는 기술결정론적인 관념적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술을 수용하게 된 우리 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맹목하게 만듦으로써 탈맥락화된 연구경향을 창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탈상황적·탈맥락적 연구는 외국 정책이나 사례들을 무비판적으로 번역·수용한 데서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 이후 산업구조

---

심으로, 오정수(1983)의 「신매체의 개발과 한국방송의 기술적 수용」, 안광식(1983)의 「신매체의 개발과 방송의 변혁 전망」, 김재홍·박기성(1985)의 「정보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공학기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조정과정에서 개발하여, 상품화·산업화하고 또한 세계시장전략화한 뉴미디어 기술들을 그 배경이나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 이해나 비판적 수용없이 단지 그 기술, 그 정책들을 전범화(典範化)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기술선별 및 정책조정을 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정보화'와 관련된 그 후의 국내 정책연구 상당 부분이 외국 사례들을 맹목적으로 모델화하여 추종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기의 탈맥락화·탈상황화된 외국 정책의 단순 소개 경향은 후속연구에 대해 그 기여만큼이나 폐해도 컸다고 하겠다.

셋째, 초기의 연구는 뉴미디어 자체에 대한 안내(signpoints)는 있었을지언정 언론학 연구의 본령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노력이 태무하였다는 점이다(이인희, 1997: 4). 초기의 뉴미디어 소개 단계에서 그런 주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네트워크를 통한 PC통신이나 각종 뉴미디어의 사회적 보급이 한정되어 있던 우리 사회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 관심을 갖기에는 시기상조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기존의 매스 미디어 연구가 주목해온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효과 등과 관련해 이미 초기 연구에서부터 새로운 매체상황에서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중심 화두로 삼지 못함으로써 국내 언론학에서 뉴미디어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아닌 매체 자체에 대한 연구 혹은 매체산업이나 매체수용정책 연구에 크게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초기의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정보화'관련 연구는 뉴미디어의 기술적 특성과 외국의 기술 개발 및 정보화 정책 사례 소

개에 치중함으로써 사회과학으로서의 언론학, 커뮤니케이션 과학으로서의 언론학과는 상당히 유리된 지점에서 출발하였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왜 ‘정보화’여야 했으며, 누구에 의해 어떻게 구성된 ‘정보화’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서 어떠한 적실성(relevancy)을 갖는 ‘정보화’인지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고, 더 좁혀서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가능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과도 무관하게 시작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겠다.

그러한 사이에 ‘정보화’ 담론은 정책 당국에 의해, 정보산업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그리고 이에 보조를 맞춘 기존 대중매체에 의해 뉴미디어의 개발·보급·확산은 곧 ‘산업사회로부터 보랏빛 정보사회로’라는 획일화된 발전론적 도식으로 지배담론화되었고, 적지 않은 언론학 연구자들도 그러한 기본도식을 내면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다.

### 3. 언론학계 ‘정보화’ 연구의 이중구조와 그 틈새

1990년대 초반까지도 언론학계의 ‘정보화’관련 연구는 여전히 1980년대의 연구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새롭게 개발·이용되는 매체들에 대한 기술적 특징이나 동향을 소개하거나 외국의 ‘정보화’ 정책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국내의 뉴미디어 수용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며, 외국의 ‘정보화’관련 문헌들을 번역 소개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전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되는 데 따른 국내에서의 미디어 수용이나 채택, 혹은 이용실태나 그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며,<sup>6)</sup> 그러한 뉴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일련의 매체환경 변화 및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 등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sup>7)</sup> 외국 연구의 소개나 '정보화'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도 비판적 관점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sup>8)</sup>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언론학계에서의 '정보화'관련 연구는 이를 보다 단순화시켜 보면, 한편으로 방송계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지향형 연구와 컴퓨터통신을 중심으로 한 학술지향형 연구로 크게 대별되는 연구경향의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서 1990년대의 '정보화' 연구는 상당기간 연구 주제나 방향, 권력과 자본과의 관계 등에서 연구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언론학계는 1990년을 전후하여 방송계 민영화를 둘러싼 정책연구가 활기를 띠던 데 이어, 1990년대 초·중반은 방송계 뉴미디어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개시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가 가열되는 현상을 빚게 된다. 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유관 정부부처나 관련 업계 그리고 학계에서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과 관련된 현안을 중심으로 각종 세

6) 예를 들자면 서정우 외(1990)의 「퍼스널 컴퓨터의 채택과 이용에 관한 연구」; 전석호(1991)의 「유선텔레비전의 수용」; 이현철(1991)의 「컴퓨터통신 이용자의 매체이용 형태에 관한 연구」; 이진철(1991)의 「문자다중방송의 채택동기와 수용에 관한 연구」; 방주현(1991)의 「비디오게임의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등이다.

7) 예컨대 한국언론학회(1990)에서 개최한 "정보화사회와 언론수용자의 인식 변화"에 관한 세미나, 한국방송학회(1990/1991/1992)에서 발행한 《한국방송학보》(1~3호)의 뉴미디어 시대 및 정보화사회에서의 방송환경 변화 및 방송정책 등에 관한 일련의 특집물; 그리고 통신개발연구원(1991)에서 홍보물로 제작한 『정보시대의 도래와 사회변화』 등을 들 수 있다.

8) 예를 들자면, 김승현 편역(1990)의 『정보사회정치경제학』,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1990)의 『이데올로기와 정보화사회』, 강상현(1992)의 「국내 '정보화'정책의 이데올로기 지형」 등이 그런 것이다.

미나를 개척하게 됨에 따라 여기에 적지 않은 학계 연구자들이 관여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연구영역이 뉴미디어나 '정보화' 연구와 무관한 중진학자들까지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가세함으로써 이른바 '떡고물'이 많은 곳으로 언론학자들이 몰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비가 다액 책정·투입되는 결과로 인해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언론학계가 호황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 결과나 발표물들이 재정리되어 학계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거나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보다는, 대부분 보고서의 형태로만 남거나 일과적인 정책용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강했다. 방송계 뉴미디어에 대한 과잉 연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학계의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편수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학술지 편집담당자들이 적정 수의 게재 논문을 얻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외에도 1990년대 초·중반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뉴미디어가 보급되고 이에 따라 '정보화'의 양적 지수도 급속 상승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학계의 뉴미디어 학자들은 대부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정책입안을 위한 연구에 정열을 쏟았으며,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의 사회적 확산의 관계를 규명하는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소홀해진 경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뉴미디어 연구가 이론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규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매체가 가져올 혜택과 매체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정책의 수립 등 매체 기능과 산업을 위주로 한 기술영향을 평가하는 데 주력하였다"(이인희, 1997: 5)는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있는 평가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정책지향 연구가 우리 사회의 뉴미디어 수용이나 '정보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방송계 뉴미디어 수용과 관련된 많은 정책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실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수용자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이 지닌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간과하였다. 정책당국과 관련 업계 및 기존 방송사와 신규 방송진입자들이 대부분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을 기존 방송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이를 정책화·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학자들 역시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경향을 정당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초기 방송계 뉴미디어 정책은 실패했다. 이는 정책의 실패임과 동시에 방송산업의 실패이며, 학계의 입장에서는 연구의 실패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연구비를 챙기는 실리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간중 언론학계는 소모적인 정책연구에의 과잉 인력유출과 뉴미디어 및 '정보화'에 대한(사회)과학적 연구의 결핍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이론화시키고 방법론적으로 정련시키는 데 상당한 지체가 불가피했다고 하겠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PC보급률이 급상승하고 PC통신 가입자들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한 일각에서의 새로운 연구관심도 크게 증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정확히는 1995년부터 국내에서도 일반대중에게 인터넷상의 WWW이 보급되고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도 급속히 보급되면서 새로운 정보공간이나 컴퓨터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연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용행태나 그것이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

화현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던 조류와 뉴미디어를 연관시키는 철학적·인식론적 논의도 등장하였다. 또한 국내 지역·계층간은 물론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보 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는 연구와 아울러 국내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로 이러한 연구는 신매체에 대한 적극적 이용자층이자 학계의 주변부에 있던 대학원생들이나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히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뉴미디어나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나 이론화의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기성·중진학자들의 정책 지향 연구보다도 언론학이 다시 사회과학으로서 나름의 자리를 재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정보화'와 관련된 언론학계 연구경향의 이러한 이중 구조=새로운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이론화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정책 지향 연구와 이론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학술 지향 연구—의 틈새에서 우리는 다른 인문사회학계에서 '정보화'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학술적 진입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각종 뉴미디어나 멀티미디어의 보급과 그들 미디어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확장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정보공간의 형성과 팽창 등이 인간의 정체성이나 인간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국가수준의 법규 및 정책 형성과정이나 제 조직 및 집단에서의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시장 기제나 문화향유방식 등 모든 부문에 걸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타전공학문의 지적 관심과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 각 학문 분과들은 그 나름의

이론적·방법론적 틀(frames)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관심 영역에서의 문제들을 탐구하고 유관 현상들을 기술·설명·예측·통제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학계의 일반적 연구경향은 더 이상 '정보화' 현상이—초창기에서처럼—언론학의 독점적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보화'와 관련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sup>9)</sup> '정보화' 현상을 언론학에서는 과연 어떠한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자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고 '정보화'와 관련된 언론학계의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1990년 이후 국내 언론학계에서 이루어져온 학술적 연구성과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진단·평가해보고자 한다.

#### 4. 한국 언론학계의 '정보화'관련 연구 추이분석

'정보화'와 관련된 언론학계의 학술적 연구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의 발표논문이나 관련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그리고 각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석·박사논문들 중에서 '정보화'와 연관된 것들이 해마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9) '정보화'와 관련된 학제적 연구는 그간 학회 차원에서 간헐적·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1997년 11월에 창립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의 출범과 1998년 4월에 개최된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사회학회가 대규모의 공동세미나 그리고 1998년부터 정보화 시민현장을 만들기 위해 20여 명의 인문사회과학자와 공학자 및 언론인 등이 공동참여하고 있는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시민사회정보포럼' 등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있고 그 추세가 어떠한지, 각 논문이나 발표문들이 다루는 주제나 연구대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여기서 언론학 관련 학술지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구 '한국사회언론연구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각기 발행하는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한국사회와 언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와 계간 학술지 《언론과 사회》 등 5개지에 국한했으며, 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한국언론학회의 경우에만 한정했다. 왜냐하면 비교적 전통이 있는 언론학회의 정기학술대회는 대부분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 신청에 의해 학술대회가 치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영역의 자연스런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학회의 경우는 정기학술대회가 주로 섹션별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되거나 조직 차원에서 미리 특정 주제를 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런 추이 분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언론학 연구자들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관심의 가장 자연스런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석·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현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배출되는 학위논문이야말로 실제 연구자들이 가장 치열한 고민 끝에 주제를 선정하고 또 기존 학계 언론학자들의 승인과 지도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서는 1990년부터 1998년 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석·박사학위를 배출해온 서울지역 9개 대학에 한정시켰다.

1) 석·박사 학위논문의 '정보화'관련 연구 추이

먼저, 이들 대학에서 배출된 석·박사학위논문 중 '정보화'와 관련된

<표 1> 국내 언론학 석·박사학위 논문 중 '정보화'관련 논문 추이

연도	석사논문	박사논문	계
1990	6/ 74( 8.1%)	0/ 11( 0.0%)	6/ 85( 7.1%)
1991	7/ 72( 9.7%)	0/ 8( 0.0%)	7/ 80( 8.8%)
1992	12/ 74(16.2%)	0/ 11( 0.0%)	12/ 85(14.1%)
1993	11/ 75(14.7%)	1/ 15( 6.7%)	12/ 90(13.3%)
1994	12/100(12.0%)	0/ 16( 0.0%)	12/116(10.3%)
1995	15/ 78(19.2%)	4/ 12(33.3%)	19/ 90(21.1%)
1996	21/ 84(25.0%)	4/ 18(22.2%)	25/102(24.5%)
1997	16/ 54(29.6%)	4/ 11(36.4%)	20/ 65(30.8%)
1998전기	13/ 42(31.0%)	4/ 10(40.0%)	17/ 52(32.7%)
계	113/653(17.3%)	17/112(15.2%)	130/765(17.0%)

- \* 위 자료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89~1997), 『전국 각 대학 언론정보학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집』 제4~12집과 정진석 편(1992), 『한국언론학 박사·석사학위논문 총목록』, 나남 등을 근거로 했음. 일부 불확실한 자료(특히 1995년과 1996년)는 대학 관련학과에 문의하여 보완한 것임.
- \* 위 자료에 근거하는 관계로 경희, 고려, 서강, 서울, 성균관, 연세, 이화, 한국외국어, 한양대 등 서울 소재 9개 대학의 자료에 한정하였음.

주제를 다룬 논문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양적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과 1991년까지만 해도 전체 논문의 7%대에 불과하던 '정보화'관련 논문이 1992~94년 사이에는 10%대로 다소 증가하고, 1995년과 1996년에는 20%대로, 그리고 1997년과 1998년에 이르러서는 30%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언론학계 석·박사논문의 거의 1/3이 '정보화' 관련 논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그러한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보다 수적으로 훨씬 적게 배출되는 박사학위의 경우는 1990년에서 1994년까지는 거의 '정보화'와 무관한 논문들이 배출되다가 1995년부터는 매년 4편씩, 비율로 보면 20~40%대로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주제별로 볼 때(<표 2> 참조),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뉴미디어의 이용이나 이용자 실태 및 그 효과나 사회문화적 영향 등

<표 2> 석·박사학위 논문 중 '정보화' 관련 논문의 주제 분포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기술·매체특성			2	2		2	1			7
미디어산업	1	1			2	2	1	5	2	14
정책·법규	1			3	2	7	4			17
도입·수용		1			1		1	2		5
이용·이용자	3	3	1	2	2	5	10	5	3	34
효과		1	1		2	1		1	1	7
사회문화 변동			1	1			2	2	2	8
언론·표현의 자유			1						2	3
저널리즘									2	2
텔레데모크라시						1	1	2	1	5
국제정보질서	1		1	1			1		1	5
내용분석							2	1	2	5
노동과정 변화			1	1	2					4
대인커뮤니케이션의 변화							2	1		3
광고·홍보					1	1		1		3
프라이버시			1	1						2
사상		1	2	1						4
기타			1						1	2
계	6	7	12	12	12	19	25	20	17	130

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고, 미디어 산업이나 정책 및 법규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의 기술적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의 활용에 따른 정보공간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그와 연관된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나 텔레데모크라시와 공론권(public sphere)에 관한 연구가 일부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매체)과 관련해서 보면(<표 3> 참조), 단일 매체로

<표 3> 석·박사학위 논문 중 '정보화'관련 논문의 연구대상 분포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기술 및 매체환경변화			2		2	3	4	2	2	15
정보·정보사회 일반	1		2	4			1	1	1	10
뉴미디어 일반	1		1	1		1	2	2		8
신문 및 인쇄매체					1	1				2
방송 일반				1						1
위성방송		2	1		1	1				5
텔레커뮤니케이션			2	1						3
이동통신(음성정보서비스포함)				1	1	1				3
CATV		1		1	3	7	7	3	4	26
게임		1		1					1	3
기타 뉴미디어(HDTV, DB, 문자방송, 비디오텍스 등)	1	1	1	1		1	1	1		7
인터넷							1	3	3	7
사이버스페이스							1		1	2
초고속정보통신망						1				1
컴퓨터	2				1		1		1	5
PC통신	1	1	2	2	1	3	6	8	4	28
인물		1	1							2
기타					1		1			2
계	6	7	12	12	12	19	25	20	17	130

서는 PC통신과 케이블TV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케이블TV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 그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다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된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가장 많은 연구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역시 지속적인 연구 관심을 보여온 PC통신의 경우-인터넷을 포함하면-1995년 이후에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도 분석대상 중 정보통신기술이나 매체환경변화, 정보·정보사회 혹은 뉴미디어 일반에 관한 것이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표 4> 석·박사학위 논문 중 '정보화' 관련 논문의 연구 대상 및 주제 분포

대상 주제	기술 및 매체 환경 변화	정보· 정 보 사 회 일 반	뉴 미 디 어 일 반	신 문 및 인 쇄 매 체	방 송 일 반	위 성 방 송	텔 레 커 뮤 니 케 이 션	이 동 통 신	C A T V	게 임	기 타 뉴 미 디 어	인 터 넷	사 이 버 스 패 이 스	초 고 속 정 보 통 신 망	컴 퓨 터	P C 통 신	인 물	기 타	계
기술·매체특성	1		1				1		1		2					1			7
미디어산업	4	2				1			6							1			14
정책	4		1		1	1	1		7		1			1					17
도입/수용						1					1	3							5
이용, 이용자	2		4			1			9		2	1			3	12			34
효과								2	1	2	1				1				7
사회문화변동	2	2				1							1			2			8
언론·표현자유			1													2			3
저널리즘	1											1							2
텔레데모크라시																5			5
국제정보질서	1	2					1						1						5
내용분석		2							1	1								1	5
노동과정	1			1				1											4
대인컴														1	2				3
광고/홍보									1			1			1				3
프라이버시		2																	2
사상																2	2		4
기타		1										1							2
계	11	14	8	2	1	5	3	3	26	3	7	7	2	1	5	28	2	2	130

이는 특정 매체나 현상보다는 '정보화'와 관련된 포괄적 현상을 전체로 혹은 배경으로 한 연구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연구 대상과 주제를 교차해서 보면, 케이블TV와 PC통신의 경우 그것의 이용실태와 이용자(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



<표 5> 언론학 관련 주요 학술지의 '정보화'관련 논문 게재 추이

연도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한국사회와언론	언론과사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계(%)
1990	0/11(1)	*6/14(1)*	-	-	-	6/25(24.0)
1991	1/12(1)	*6/12(1)*	-	-	-	7/24(29.2)
1992	2/30(2)	2/16(1)*	2/21(2)*	-	-	6/67( 9.0)
1993	0/14(2)	1/9 (1)*	1/10(1)*	0/10(2)*	-	2/43( 4.7)
1994	2/19(2)	3/9 (1)*	1/12(1)*	1/20(4)*	-	7/60(11.7)
1995	2/17(3)	5/9 (1)	4/18(2)*	3/21(4)*	-	14/65(21.5)
1996	6/19(4)	1/5 (1)	2/7 (1)*	1/17(4)*	-	10/48(20.8)
1997	7/27(4)	4/11(2)	*14/18(2)	1/17(4)*	5/5 (1)	31/78(39.7)
계	20/149	28/85	24/86	6/85	5/5	83/410(20.2)

주1) 괄호 속은 해당년도 발행호수를 나타냄.

주2) \*/ : / 표시의 앞에 \*가 있는 경우는 '정보화'관련 특집물을 다룬 경우.

주3) /\* : / 표시의 뒤에 \*가 있는 경우는 '정보화'와 무관한 별도의 특집을 다룬 경우.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 케이블TV는 주로 미디어산업과 정책 관련 연구가 많은 데 비해, PC통신의 경우는 텔레데모크라시(공론권 포함)에 대한 연구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학술지에서의 '정보화'관련 논문 추이

다음으로 언론학계에서 발행되는 주요학술지들에 게재된 논문(1990~1997년) 중 '정보화'와 관련된 것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석·박사학위논문의 추이와 다소 차이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보화' 관련 논문의 게재 비율이 19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1990년과 1991년의 경우, 당시 <<한국언론학보>>와 <<방송학보>>만이 있던 상황에서, <<방송학보>>

의 창간호와 제2호가 '정보화' 혹은 매체환경 변화와 관련된 특집물을 다루었던 관계로 그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유 투고 형식인 《언론학보》의 경우 1996년 이후 '정보화' 관련 논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와 언론》 역시 1997년에 나온 2권의 학술지가 '정보화' 관련 논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1998년에 창간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역시 '정보화'와 관련된 논문만을 다루는 관계로 해서 언론학과와 관련된 주요 학술지에서의 '정보화' 관련 논문은 1995년 이후 전체 게재 논문의 20~40%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정보화'에 대한 학계 연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연구대상(매체)과 관련해서 보면, 역시 매체환경이나 기술 변화, 정보나 정보사회 일반에 관한 포괄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연구 대상 매체로는 케이블TV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본격적인 케이블TV 방송 개시년도인 1995년을 전후해서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연구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현안문제와 관련해 많은 세미나를 가졌던 위성방송의 경우는 학술논문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 관련 연구도 1996년의 2편 외에는 학술지에 발표된 경우가 없었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어서는 PC통신과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보화'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들을 주제별로 보면, 정책 관련 논문이 전체의 1/3을 넘어설 만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디어 산업, 사회문화 변동, 기술 및 매체 자체의 특성 등에 관련된 논문도

<표 6> 언론학관련 주요 학술지의 '정보화'관련 논문의 연구대상 분포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계
사회문화변동		2	1	1	1	2		2	9
기술·매체특성						2	1	3	6
미디어산업	1					1	3	4	9
정책	2	3	3		5	3	1	11	28
도입·수용									0
이용·이용자	1					2	1		4
언론·표현의 자유								1	1
저널리즘									0
텔레데모크라시						2	2	2	6
국제정보질서			1					2	3
내용분석									0
노동과정 변화							1		1
대인커뮤니케이션의 변화									0
광고·홍보		1							1
프라이버시								2	2
효과									0
사상							1	4	5
공영방송			1		1	1			3
기타	2	1		1		1			5
계	6	7	7	2	7	14	10	31	83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관련 논문의 경우, 구체적인 매체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보다는 매체환경변화나 기술변화 혹은 정보화나 정보사회 문제와 같이 포괄적인 환경변화와 관련된 정책대응인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매체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시 케이블TV 정책 논의가 다수를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산업관련 논문 중에서도 케이블TV와 연관된 논문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 문화 변동의 문제를 다룬 논문들의 경우도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매체 환경이나 기술의 변화 혹은 일반적인 정보화 추세에 따른 변화상을

<표 7> 언론학관련 주요 학술지의 '정보화' 관련 논문의 주제 분포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계
기술 및 매체환경변화	4	5	1	1	3	5	2	5	26
정보·정보사회 일반	1		1	1	1			8	12
뉴미디어 일반						1	1	3	5
신문 및 인쇄매체							2		2
방송 일반			1			1		1	3
위성방송	1	1	1						3
텔레커뮤니케이션			1		1	1			3
이동통신(음성정보서비스 포함)									0
CATV					2	2	3	4	11
게임									0
기타 뉴미디어(HDTV, DB, 문자방송, 비디오텍스 등)			1						1
인터넷								4	4
사이버스페이스							1	2	3
초고속정보통신망						1		1	2
컴퓨터		1							1
PC통신						2		2	4
인물							1	1	2
기타						1			1
계	6	7	7	2	7	14	10	31	83

사변적으로 기술한 논문들이 비교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학계의 학술지 게재 논문들의 주제와 관련하여 볼 때, 또다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정보화'나 유관 매체 현상을 다루면서도 언론학계의 주요 관심사인 저널리즘이나 대인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논문이 전무하고, 뉴미디어의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거나 각종 뉴미디어에 의해 유포 또는 공유되어지는 메시지에 대해 내용분석이나 담론분석을 하는 논문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서 케이블TV, PC통신, 사이버스페이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텔레데모크라시(공

<표 8> 언론학관련 주요 학술지의 '정보화'관련 논문의 연구 대상 및 주제 분포

대상 주제	기술	정보	뉴미디어	신문	방송	위성	텔레	이	C	기타	인	초	P	인	기	계			
	및	·	어	및	일	방	커	동	A	뉴	터	고	C	물	타				
	매	정	일	인	송	송	뮤	통	T	미	넷	속	통	인	타				
	체	회	쇄	일	방	니	신	V	디	어	정	신	물	타					
	환	사	일	매	반	송	에	이		어	스	보	신	물	타				
	경	회	반	체	반	송	이	선		어	페	통	신	물	타				
	변	일	반	체	반	송	이	선		어	이스	신	망	물	타				
	화	반	반	체	반	송	이	선		어	망	망	망	물	타				
사회문화변동	3	3								1			1	1		9			
기술,매체특성	1		2	1							1			1		6			
미디어산업	2		2		1		1		3							9			
정책	10	5			1	1	2		5		2	1		1		28			
도입, 수용																0			
이용, 이용자	2								2							4			
효과		1														1			
언론·표현자유											1					1			
저널리즘																0			
텔레태모크라시	1								1			1	1		1	6			
국제정보질서		1				1						1				3			
내용분석																0			
노동과정 변화				1												1			
대인컴 변화																0			
광고, 홍보	1															1			
프라이버시		2														2			
사상		1	1									1			2	5			
공영방송	2				1											3			
기타	3					1										4			
계	25	13	5	2	3	3	3	0	11	0	1	4	3	2	1	4	2	1	83

론권 포함) 논의가 1995년 이후 꾸준히 다루고 있고, 보다 최근에는 '정보화'나 사이버 공간과 연관된 새로운 문화현상에 대한 사상·사조에 대한 논의나 유관 인물에 대한 비평적 논문 등이 일부 등장하고 있다.

〈표 9〉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중 '정보화' 관련 논문 게재 추이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전체 발표 논문수(A)	28	29	28	24	40	45	36	42	23	295
'정보화'관련 논문(B)	*7	5	2	2	3	6	8	15	8	56
B/A*100(%)	25.0	17.2	7.1	8.3	7.5	13.3	22.2	35.7	34.8	19.0

\* 1990년 가을학회에는 한국통신학회 지원 세미나 특집(4편) 포함.

\* '98의 경우는 봄철 학술발표대회에 한정된 것임.

그리고 연구의 시각과 관련해서 보면, 1990년대 초기 연구에 비해 중·후반으로 갈수록 '정보화'와 관련한 비판적 관점의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일견 주목해볼 만한 연구경향이라고 하겠다. 이는 정책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부록 참조).

### 3) 정기학술대회에서의 '정보화'관련 논문 추이

여기서는 한국언론학회에 한정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sup>10)</sup>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정보화'관련 논문 역시 부분적인 예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체 발표논문의 1/3 가량이 '정보화'와 관련된 논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에 있어서도 정보나 정보사회 일반, 매체환경 및 기술

10)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구성은 각 학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방송학회는 섹션별 발표를 하고 있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거의 대부분의 발표논문이 '정보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출범한 한국언론정보학회 역시 아직까지는 기획된 주제를 중심으로 논문 발표를 하고 있다. 다만 한국언론학회의 경우는 간혹 예외가 있긴 하지만,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바탕으로 학술대회가 꾸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발표논문 중 '정보화'관련 논문의 비교적 자연스러운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한국언론학회와 같은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분석을 한국언론학회의 경우만으로 한정했다.

<표 10>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중 '정보화'관련 논문의 연구대상 분포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기술 및 매체환경변화	1					1	1	2		5
정보·정보사회 일반	4	1		1			1	1	2	10
뉴미디어 일반						1	2	1		4
신문 및 인쇄매체							1	1		2
방송 일반	1			1		1				3
위성방송		1								1
텔레커뮤니케이션		1	1							2
이동통신(음성정보서비스 포함)					1			1		2
CATV	1	2			1	1	1	1	1	8
게임										
기타 뉴미디어(HDTV, DB, 문자방송, 비디오텍스 등)									1	1
인터넷							1	3		4
사이버스페이스							1	1	3	5
초고속정보통신망										
컴퓨터										
PC통신						2			1	3
인물			1		1			4		6
기타										
계	7	5	2	2	3	6	8	15	8	56

변화 그리고 뉴미디어 일반 등 포괄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매체와 관련해서도 케이블TV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기 학술대회에서도 인터넷이나 사이버 스페이스 등에 관한 논문은 비교적 최근인 1996년 이후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주제면에서도 학술대회 발표논문 중 정책관련 논문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미디어산업이나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 특성, 그리고 뉴미디어의 이용실태나 이용자 등에 관한 논문 역시 비교

<표 11>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중 '정보화' 관련 논문의 주제 분포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기술·매체특성					1	1	2	2		6
미디어산업					1		3	2	1	7
정책	3	3	1	2		2	1	2		14
도입·수용										0
이용·이용자	4								2	6
효과								1		1
사회문화변동								2		2
언론·표현의 자유		1								1
저널리즘										0
텔레데모크라시									2	2
국제정보질서		1					1	1		3
내용분석						1				1
노동과정 변화										0
대인커뮤니케이션의 변화						1		1		2
광고·홍보						1				1
프라이버시										0
사상			1		1		1	4	1	8
기타									2	2
계	7	5	2	2	3	6	8	15	8	56

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정책관련 연구나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에 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 비중이 줄어들면서 연구주제가 어느 정도 다양성을 띠면서도, 미디어산업쪽에 관한 연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술대회 발표논문 중에서도 다소 두드러지는 점은 '정보', '정보사회' 등과 관련된 현대 사조나 사회사상 혹은 그와 연관된 인물들의 관점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도 19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주제의 다양성과 함께 비판적 관점의 수용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언론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 중에도 정작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저널리





술지에 게재된 논문 그리고 한국언론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등에 한정해서 1990년 이후 발표된 논문 중 '정보화' 관련 논문의 비중이 어떤 양적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그들 논문의 연구대상(매체)과 주제는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그 주된 특징만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매우 한정되고 부분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하겠다.

첫째, '정보화' 현상과 관련된 연구가 1990년대 후반으로 올수록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인 1997년과 1998년경에 이르러서는 학위논문은 물론 학술지와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중 30% 이상이 모두 '정보화'와 관련된 것들이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성과가 최근에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보화'와 그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 등 일반적인 추이를 배경 혹은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인 매체별로 보면 케이블TV가 연구대상이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5년 국내 종합유선방송 실시와 관련된 연구 관심의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이미 1980년대부터 CTS 도입 등을 통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온 신문매체나, 역시 1990년대 들어 많은 논란을 거듭해온 위성방송 및 여타 방송계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 관심은 비교적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199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어서는 PC통신과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 등에 대한 연구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매체 및 통신공간에 대한 연구물들은 기성학계의 학술지나 학술발표대회에서보다는 석·박사학위 논문들에

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장 연구자들의 지적 관심의 추이를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또한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학술지와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에는 정책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연구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미디어의 이용실태나 이용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역시 정책연구와 미디어산업 연구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언론학계 연구의 주된 관심사가 어떤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보화'를 (대인)커뮤니케이션 현상이나 저널리즘 문제와 연결시킨 학술적 연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비교적 최근들어서는 PC통신 및 인터넷의 이용 확대에 따라 텔레데모크라시나 공론권 등에 관한 연구와 '정보화'나 사이버공간의 확대 문제를 새로운 사회문화사조와 연결시켜 설명하려는 연구 등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의 대상(매체)이나 주제가 시기 진전에 따라 다양화되는 추세이고, 연구시각에 있어서도 점차 비판적인 관점의 수용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구대상이나 주제의 이러한 다양화 현상은 물론 비판적 관점의 수용 역시 학회 중심의 학술지나 학술대회 발표논문보다는 주로 석·박사학위—특히 석사학위—논문이 선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성학자들보다는 소장 연구자들이 '정보화'나 새로운 매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매체 이용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정보화'관련 연구는 앞으로도 위로부터 체계화된 연구 전통이 하

향 전승되기보다는 급속히 변화하는 매체환경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실제 새로운 매체 경험에 익숙한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분화되고 심화되는 연구 관심의 파상현상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IV. 한국 사회의 '정보화'와 언론학 연구의 새로운 과제

'정보화'와 관련된 국내 언론학계에서의 연구는 실제 우리 사회의 '정보화' 과정에 대한 지적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매체연관성이 강한 언론학의 관점에서는 기존의 주된 연구대상이었던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와는 그 특성에 차이가 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를 상호 연결하는 통신망이나 그로 인해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은 미디어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갖는 의미나 영향력 등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보화' 현상에 대한 국내 언론학계의 초기 대응과 그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에 대해 대략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내 언론학계에서의 '정보화' 연구는 초기부터 방향설정이 잘못되었다.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기술학·정책학·산업학적 성격이 강한 출발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뉴미디어에 대한 기술 안내학이자,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맹목적 지원

학이었고, 동시에 새롭게 육성되는 정보통신 및 방송산업에 대한 후견학적 성격이 강했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1980년대 초기 연구의 일반적 대응은 그러한 기술이 배태되고 산업화된 동기에 대해 제대로 된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고 왜 그러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 그 자체가 지닌 탁월한 기능적 특장을 토대로 한 미래사회, 즉 정보사회의 장미빛 전망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정당화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일조하였다. 그러한 초기 연구의 경향성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보다는 정책추진의 당위론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매체산업에의 대대적인 자본 참여와 투자를 고무시키는 데 힘을 실어 주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정보화'에 대한 언론학계의 주된 연구 관심은 1980년대의 그러한 일련의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여전히 기술 중심적이고, 정책지향적이며, 매체산업 지향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언론학이 '정보화' 문제를 그 본령인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 현상과 연결지어 고민하는 기회를 그만큼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설부른 단정일지 모르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도 '정보화' 현상이나 문제를 언론학의 관점에서 이론화하려는 노력, 혹은 그와 관련된 기존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이 별로 돋보이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정보화' 연구와 관련된 언론학에서의 방법론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언론학계에서 '정보화' 관련 연구가 30~4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지적 관심과 그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은 난무

하는데도 이론화나 방법론적 정교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대상은 있는데 이론적 토대와 방법론의 개발이 취약한 상태이다. 오히려 다른 학문 영역에서의 '정보화' 논의와 이종교배되면서 더욱 그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만큼 그에 대해 의존적이라는 역설이 언론학계의 현실을 더욱 설득력있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에서 논의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에 대한 언론학의 과제 몇 가지를 나름대로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화'와 관련해서 언론학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 개념 및 과제로 하는 연구 전통을 복원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즉 언론학은 넓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과학으로서 '정보화' 현상을 기술·설명·예측·통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뉴미디어나 멀티미디어의 개발, 보급, 이용 및 네트워크화 등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조직, 사회, 국가 및 전지구적 차원의 정보 처리와 전달 및 의사소통 방식과 맺고 있는 관계나 그 과정 또는 결과 등을 해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언론학은 사람들간의 직접적인 혹은 특정 매체에 의해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특수성과 정체성이 자부되어 왔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와 연관된 언론학의 그간의 연구 관심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현상보다는 메시지의 유포(distribution)나 전달(transmission) 혹은 그로 인한 설득과 수용자 반응 등에 집중화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은 실제 '커뮤니케이션' 현상이기보다는 '대량유포'나 '대량전달' 현상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하

겠다. 오히려 최근의 '정보화'로 인한 PC통신이나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이야말로 종종 강조되는 '쌍방향성', '다방향성'으로 인해 사람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확장 국면을 반영해주고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매개된 커뮤니케이션'(mediated communication)을 사회화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컴퓨터통신 매체에 의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확장 역시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장'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학이 그 본령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공간을 확대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정보화'에 대해 그간의 지배적이었던 '기술 및 매체 중심적인 논의'로부터 '인간과 사회 중심적인 논의'로의 선회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최근까지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일정 정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정보통신기술이나 매체의 기술적 특징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대인적 영향이나 사회적 결과를 예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외부로부터 이식되고 내부의 제한된 이해집단에 의해 견인된 '정보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의미의 '정보화'는 사회의 다수 구성원의 필요와 사회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한 '정보화'여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입장에서 인간의 필요에 적응하는 '정보화'여야 한다는 것이다(윤영민, 1998; 김환석, 1998).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그리고 누구 혹은 어떤 집단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어왔는지,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정보화'가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진정한 필요에 합당한 '정보화'였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작업 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 중심적인 정보화'를 위한 사회적 설계 방식이나 절차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의 선택, 수용 및 활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보다 많은 연구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의 '정보화' 관련 연구는 정책 지향 연구나 미디어산업 중심의 연구처럼 '위로부터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구성원의 일상적 삶의 현장으로부터 '정보화'의 실익을 담보받을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정보화'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정보화'는 그 출발부터 신군부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되고,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대자본의 이윤동기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로 인해 언론학에서의 초기 '정보화' 관련 연구는 정책과 매체산업 중심의 연구로 경도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기술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화 현상도 주로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정책화되고 산업화되었다. 초기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혹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사이버 스페이스도 점차 상업화되고(오택섭, 1997: 13-14), 권력의 통제로부터 점차 자유롭지 못한 공간으로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통신공간 및 방송채널 등을 시민적 권리 실현을 위한 '열린 마당'으로 만들고, 누구나 최소의 비용으로 쉽게 그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마저도 일방적 정보전달을 위한 대중매체화하는 것을 방어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적(지역)공동체(네트워크)를 형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들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 관심과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다(김주환, 1997: 66-69; Miller, 1996: 211-259, 319-340). 특히 새롭게 형성되고 확장되는 사이버 공간마저도 다시 권력과 자본의 것으로 예측되는가, 아니면 사회 다수구성원의 삶의 편익을 위한 대안적 공간 혹은 새로운 자율적 공간으



로 구성되는가 하는 것마저도 연구자들의 지적·도덕적 헤게모니에 의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넷째, 그동안의 국내 '정보화' 연구는 1990년대 초·중반까지의 산업·정책 지향 연구와 1990년대 후반의 일부 이론 지향 연구가 분극화된 이중구조를 이루어왔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서로 별개의 연구 혹은 상호 배타적인 연구 경향으로 공존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보다 균형된 연구로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질 '정보화' 관련 산업·정책 연구는 이론적 탄실함을 더욱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론지향적 연구 역시 현실에 대한 설명력 혹은 비판적 인식과 결코 유리될 수 없다는 전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물가치적 수용 위주의 정보화' 연구로부터 '선별적이고 방어적인 정보화'에 대한 연구 관심의 확대가 요구된다. 주로 초기 연구에서는 매체기술의 선진성에 의탁한 정보화 강대국의 정책이나 매체산업을 지나치게 모델화하고 전범화(典範化)하여 새로운 미디어의 수용을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의 실정이나 여건에 맞지 않는 새로운 미디어의 무분별한 수용과 이식이 결과적으로는 정책 실패, 산업 실패를 적지 않게 가져왔다. 이는 바로 그와 연관된 연구의 실패와 과오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패들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정보화'의 대외의존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기술종속과 정보종속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술력과 자본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사이버 자본주의나 인터넷 제국주의의 공세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

및 정보통신과 방송 등의 글로벌화에 의해 새롭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현실화되고 있는 국가간의 정보불평등 문제와 기술·정보·문화의 지배·종속 관계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분석과 대응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연구 관심이 요구된다.

여섯째, 언론학계로서 '정보화' 연구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의 하나는 '정보화'에 대한 언론학적 이론 구축과 새롭고도 적절한 방법론의 개발일 것이다. 이 역시 '정보화'와 관련된 일련의 현상을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보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나 이론으로 '정보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여전히 기술·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별이 요구되며, 후자의 경우에 요구되는 새로운 모델이나 이론의 개발 역시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자면 과거 쌍방향적 대인 커뮤니케이션과 일방향적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도식 위에 뉴미디어/멀티미디어에 의한 쌍방향/다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매개된'(mediated) 쌍방향성과 다방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독특한 입지가 새롭게 구성된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는 개인, 조직, 지역, 국가, 국제적인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연구방법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등의 새로운 미디어들이 갖는 보다 고도한 기능적 특징들—예컨대 멀티미디어, 하이퍼텍스트성, 패킷 스위칭, 동시성, 상호작용성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과거의 연구에서와는 다른 자료 수집과 처리 및 분석방법을 구상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Newhagen & Rafarli, 1996: 6).

끝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제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논의과정에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보화'관련 연구에 대해 보다 숙고된 메타이론적 천착을 하지 못하고, 평면적인 현상기술과 규범적인 제언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분류에 있어서도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개념적 범주화에 이르지 못한 채 다만 기존연구들을 대상과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이를 기준으로 현황분석과 방향설정을 하는 분석방법상의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연구방법이나 내용들을 일일이 분석하여 다루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인 경향성 논의에 그친 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이루어져 온 '정보화'관련 국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대략적인 특징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소박한 목적에서 단기간에 준비된 것이다. 그와 관련된 기존논의가 태무한 상황에서 다만 밑그림을 그린 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당연히 앞으로의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 국내 '정보화' 연구에 대한 보다 정련된 탐구와 보다 의미있는 연구방향의 설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이다.

□ 참고문헌

- 강상현(1996), 『정보통신혁명과 한국사회: 뉴미디어 패러독스』, 한나래.
- 김동진(1990), 「한국방송연구 30년의 시대적 경향과 그 성찰」,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언론학연구 30년: 성찰과 전망』, 315-342쪽.
- 김성기(1997), 「정보혁명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언론》 제8호, 한울, 8-23쪽.
- 김주환(1997),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정보의 의미」,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한국사회와 언론》 제8호, 한울, 45-69쪽.
- 김환석(1990), 「정보기술과 정보사회: 사회적 구성론의 함의」, 크리스찬아카데미 시민사회정보포럼 발제 논문, 1월 19일.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199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창간호, 가을.
-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1990~1996), 『전국 각 대학 신문학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집』 제5집~제11집.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1997), 『전국 각 대학 언론정보학 석·박사 학위논문 요약집』, 제12집.
- 양승목(1998), 「21세기와 언론학 패러다임 변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개설 40주년 기념세미나 발표논문, 11월 21일.
- 《언론과 사회》, 창간호~18호, 1993 가을~1997 겨울.
- 오택섭(1997), 「인터넷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창간호, 가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편, 6-28쪽.
- 윤영민(1998), 「정보화 현장 제정을 위한 포럼의 의제(안)」(미발표 자료).
- 이인희(1997), 「언론학에서의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연구동향」, 사이버

- 커뮤니케이션학회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발표논문집, 11월 21일, 1-13쪽.
-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8), 《정보통신산업 월간 동향》, 12월.
- 정진석(1992), 『한국언론학 박사·석사학위 논문 총목록』, 나남.
- 한국방송학회(1990~1996), 《방송학연구》 창간호~7호, \_\_\_\_\_, 《한국방송학보》 8~10호, 1997 봄~1998 봄.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한국사회와 언론》 창간호~9호, 1992. 2~1997. 12.
- 한국언론학회 편(1990), 『한국언론학연구 30년: 성찰과 전망』.
- 한국언론학회(1990~1991), 《신문학보》 25~26호  
\_\_\_\_\_, 《한국언론학보》 27~42/2호, 1992~1997 겨울.
-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0년 봄~1998년 봄.
- Miller, Steven, E.(1996), *Civilizing Cyberspace: Policy, Power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New York: ACM Press.
- Newhagen, John and Sheizaf Rafaeli(1996), "Why Communication Researchers Should Study the Internet: A Dialogue,"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6, No.1, Winter, pp. 4-13.
- Rogers, Everett M.(1986),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ew Media in Society*, New York: Free Press.
- Rogers, E. M.(1994), *A History of Communication Study*, New York: Free Press.
- Williams, Frederick, Ronald E. Rice & Everett M. Rogers(1990), *Research Methods and the New Media*, New York: Free Press.

## 부 록

### - '정보화' 관련 논문 목록 -

참고·성명, 「논문 제목」, 연도 순

#### 1. 석·박사 학위논문

- 김성수,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매체산업 동향의 경제적 분석 연구」, 1990.
- 문보숙, 「한국의 비디오 텍스 수용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1990.
- 김봉렬, 「홈컴퓨터의 채택과 이용에 관한 사례 연구」, 1990.
- 김양하, 「청소년의 홈컴퓨터 수용에 관한 연구」, 1990.
- 이종진, 「컴퓨터 게시판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1990.
- 전희락, 「정보산업의 기술이전에 관한 연구」, 1990.
- 박진숙, 「도시여성의 CATV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편성 연구 -목동, 상계동 종합유선방송 가입청약자를 중심으로」, 1991.
- 김정혜, 「한국 청소년들의 일본 위성방송 시청에 관한 연구」, 1991.
- 방주현, 「비디오게임의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1991.
- 김희정, 「위성방송(Satellite Broadcasting) 시대의 프로그램 공급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1.
- 이상길, 「'정보사회비판'으로서 미셸푸코의 권력 분석에 관한 연구」, 1991.

- 이현철, 「컴퓨터 통신 이용자의 매체 이용 형태에 관한 연구」, 1991.
- 이진철, 「문자다중방송의 채택동기와 수용에 관한 연구」, 1991.
- 길재섭, 「포스트 구조주의 주체와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연구」, 1992.
- 노기영, 「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1992.
- 송원섭,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인식」, 1992.
- 이광엽, 「정보사회의 문화적 가치창출에 관한 연구」, 1992.
- 이승환,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확산에 상호작용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2.
- 박종만, 「기술혁신과 노동과정에 관한 연구」, 1992.
- 강건욱, 「미셀푸코가 제시한 인간제어권력의 정보사회적용에 관한 연구」, 1992.
- 박기성, 「직접위성방송과 문화적 정체성」, 1992.
- 윤은상, 「뉴미디어의 출현과 새로운 언론자유 의 성립」, 1992.
- 윤재식, 「사내 유선TV 방송에 관한 연구」, 1992.
- 이형걸, 「한국 데이터통신 기술체계의 대외종속에 관한 연구」, 1992.
- 현군택, 「다매체 환경에서의 수용자분화에 관한 연구」, 1992.
- 박순백,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1993.
- 이원재, 「전자게시판 이용자의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 1993.
- 김혁조,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후기구조주의적 접근」, 1993.
- 이은택, 「신세계정보질서운동에 대한 현대적 고찰」, 1993.
- 사용진,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93.
- 고동선, 「탈규제 정책과 방송이념의 변화」, 1993.
- 김유경, 「1980년대말 통신부문 규제완화정책에 관한 연구」, 1993.
- 류지석, 「HDTV의 개발과정을 통해 본 정보기술의 성격에 대한 연구」, 1993.
- 송중현, 「무선호출기 도입에 따른 영업직 노동자들의 업무행태 변화 인

- 식에 관한 연구», 1993.
- 김경희, 「신문기자들의 뉴미디어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1993.
- 송준영, 「정보통신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1993.
- 이용우, 「한국 종합유선방송의 편성전략에 관한 연구», 1993.
- 김승규, 「위성방송(DBS)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전파이론(Diffusion Theory)을 중심으로», 1994.
- 박종민, 「CATV 프로그램 심의기준과 기구에 관한 시청자 인식 연구 -수용자의 언론 자유개념과 미디어 접근성 중심으로», 1994.
- 오영채, 「지역 정보화사회 구현을 위한 Cable TV의 지역적 대안에 관한 연구 -정책적 측면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1994.
- 최진한, 「CTS도입에 따른 신문노동변화에 관한 연구 -편집부를 중심으로», 1994.
- 최익창,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의 자유시장 모형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94.
- 김미경, 「인론자본합리화에 따른 언론노동통제형태 변화에 대한 연구», 1994.
- 유옥진, 「정보매체 이용경험과 수용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컴퓨터 사용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1994.
- 유홍식, 「무선호출기 이용의 개인적,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무선호출기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적 영향을 중심으로», 1994.
- 이동우, 「비디오게임이 어린이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994.
- 이삼용,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정책 결정요인과 적용에 관한 연구», 1994.
- 최난주, 「PC통신의 광고매체로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1994.
- 이진균, 「종합유선방송의 프로그램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4.



- 전진오, 「PC통신을 이용한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행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1995.
- 정 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정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과 '탈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1995.
- 양승혜, 「HDTV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 표준화에 따른 기술지체의 원인 및 표준화 결정 요인 분석」, 1995.
- 배진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대인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 1995.
- 이근용, 「케이블TV의 규범적 이미지가 수용자 채널선택의 능동성에 미치는 영향」, 1995.
- 이병섭, 「뉴미디어이용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1995.
- 박규장, 「한국과 미국의 케이블TV법제 비교연구」, 1995.
- 강혜림, 「CATV 홈쇼핑 이용자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1995.
- 윤해진, 「정책참여자들의 케이블TV 소유권에 대한 인식 연구」, 1995.
- 최현수,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1995.
- 이용준, 「컴퓨터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인한 인쇄매체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연구 -생산방식과 매체조직의 변화를 중심으로」, 1995.
- 강찬욱, 「케이블TV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 유럽, 한국의 케이블 TV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1995.
- 김형국, 「위성방송의 정책방향 연구 -외국 위성방송의 成敗요인을 중심으로」, 1995.
- 신경선, 「다매체시대의 공중과 텔레비전의 편성방향 연구」, 1995.
- 원종원, 「PC통신 정치란에 관한 연구 -HITEL과 천리안을 중심으로」, 1995.

- 유승관, 「한국 케이블TV의 지역채널 운용전략에 관한 연구」, 1995.
- 윤영준, 「케이블TV 광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편성 및 운행전략을 중심으로」, 1995.
- 정홍태, 「방송, 통신 융합현상에 따른 정책적 딜레마 연구 -VOD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5.
- 조은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보편적 서비스 정착 방안을 중심으로」, 1995.
- 김창수, 「케이블TV 뉴스 프로그램 시청과정 연구」, 1996.
- 송진, 「방송정책 유형화 연구」, 1996.
- 윤현숙, 「매체 환경 변화와 시청 패턴에 관한 연구」, 1996.
- 김정희,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 컴퓨터 통신 '전자대화'와 '전자토론'을 중심으로」, 1996.
- 성열우, 「데이터베이스 검색경험이 검색성과와 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6.
- 연구찬, 「대인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특성이 컴퓨터 조작능력에 미치는 영향」, 1996.
- 채미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케이블TV 시청자의 이용패턴과 충족에 관한 연구」, 1996.
- 김옥조, 「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과 뉴미디어 법적 질서에 관한 연구」, 1996.
- 안명규, 「공중과 방송과 케이블텔레비전 뉴스의 내용과 구조비교분석」, 1996.
- 오연주,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 1996.
- 유은경, 「신문에 나타난 정보사회 관련 기사 내용분석」, 1996.
- 이도형, 「기능대안적 관점에서 본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1996.

- 정혜경, 「한국케이블TV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1996.
- 조진영, 「상호작용적 신매체의 선택 및 이용모델 연구」, 1996.
- 박정석,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이용에 관한 연구」, 1996.
- 구종상, 「케이블TV에 대한 이해단체의 인식구조 연구」, 1996.
- 김영화, 「PC통신의 이용행태와 이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1996.
- 성 백, 「정보기술발달에 따른 교육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96.
- 양찬일, 「인터넷의 확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1996.
- 윤대일, 「정보통신 광고의 기호학적 분석」, 1996.
- 이광석, 「정보공간에 기반한 초국적기업의 재생산전략 연구」, 1996.
- 이지훈, 「정보시스템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6.
- 이상희, 「PC통신자의 매스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 1996.
- 정인숙, 「방송정책결정과 과정에 관한 연구 -케이블TV 사례를 중심으로」, 1996.
- 이상일, 「케이블TV 초기가입자 특성연구-가입자 비가입자 판별분석」, 1996.
- 이만제, 「한국 PC통신 문화에 관한 연구 -Pierre Bourdieu의 장, 아비투스, 문화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1997.
- 이진로, 「한국 컴퓨터 통신 산업의 형성 및 성장에 관한 연구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기업을 중심으로」, 1997.
- 천원주,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1997.
- 호영주, 「한국과 대만의 케이블TV 이용과 충족에 관한 연구」, 1997.
- 소현진,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 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1997.
- 오수진, 「여론 형성장으로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1997.

- 권병수, 「상호작용적 텍스트의 사용과정에 관한 연구」, 1997.
- 조진경, 「케이블TV가 TV뉴스 시청과 지식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뉴스 이용동기를 중심으로」, 1997.
- 박현구, 「PC통신 게시물의 유사언어적 표현에 관한 연구」, 1997.
- 손경수, 「인터넷을 이용한 군홍보 방안에 관한 연구」, 1997.
- 김경란, 「인터넷 광고의 수용에 관한 연구」, 1997.
- 김성벽, 「한국 케이블TV의 기업집중과 다각화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1997.
- 서보윤, 「PC통신 방송정보서비스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1997.
- 송경희, 「영상매체 경쟁에 관한 연구」, 1997.
- 이경숙,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활성화 방안 연구」, 1997.
- 장석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서의 인터넷 방송 수용에 관한 연구」, 1997.
- 주영호, 「디지털테크놀로지로 인한 방송산업의 구조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1997.
- 황영아, 「뉴미디어 수요에 따른 수용자 분화에 관한 연구」, 1997.
- 김정순, 「정보사회 담론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7.
- 임영환, 「PC통신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 토론방의 적용가능성과 제한 요인을 중심으로」, 1997.
- 조문식, 「컴퓨터 게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 퍼어스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1998.
- 이미나, 「인터넷 광고와 수용자 상품론」, 1998.
- 조성은, 「통신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고찰」, 1998.
- 오경래, 「케이블TV 채널 묶음 판매전략에 관한 연구」, 1998.
- 채유라, 「컴퓨터 통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전자게시판을 중심으로」, 1998.
- 국현호, 「인터넷 신문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8.

- 정진홍, 「맑스주의의 위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명사적 전회 -노동과 생산 중심의 문명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교류 중심의 문명으로」, 1998.
- 조용철, 「매체 기술 발달에 따른 저널리즘 속성 연구」, 1998.
- 이화진, 「방송규제와 시장성과 -케이블 네트워크 산업의 사례분석」, 1998.
- 장성아,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자의 채널 레퍼토리 분석 -결정요인 및 시청패턴을 중심으로」, 1998.
- 조영신, 「공적 영역으로서 PC통신 토론방에 관한 연구 -토론방 이슈와 일간신문 보도이슈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1998.
- 최길옥, 「공익적 관점에서 파악한 공공채널(KTV) 프로그램 분석」, 1998
- 나도상, 「가상 공간에서의 주체의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 1998
- 손현희, 「정보기술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연구」, 1998
- 김현정, 「인터넷 광고의 이용동기와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1998
- 박정은, 「컴퓨터 리터러시 수준 격차의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의 정보추구 동기화와 동료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1998
- 박호근, 「PC통신의 이용행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1998

## 2. 정기학술대회

- 강만석 외, 「정보화사회와 신문독자의 인식 변화」, 1990.
- 김광수, 「정보화사회와 광고수용자의 인식 변화」, 1990.
- 윤희중,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이용자의 인식 변화」, 1990.
- 장익진, 「정보화사회와 방송시청자의 인식 변화」, 1990.

- 정윤식, 「유럽 방송정책의 정치경제적 접근」, 1990.
- 이동신, 「CATV 수용가능성 및 정책에 관한 연구」, 1990.
- 정윤식,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제도와 프로그램 규제에 대한 고찰」, 1990.
- 박성호, 「유럽의 정보정책 -프랑스의 정보화 정책을 중심으로」, 1991.
- 송해룡, 「독일의 통신정책: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1991.
- 유의선, 「CATV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정책 제언」, 1991.
- 윤은상, 「뉴미디어 출현에 따른 새로운 언론자유 정립에 대한 연구 - 종합유선방송의 언론자유를 중심으로」, 1991.
- 장형익, 「직접위성방송(DBS)과 국제정보유통 양상의 변화」, 1991.
- 김명준, 「탈규제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92.
- 김성재, 「정보(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모험: 니콜라스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통해 본 '정보사회'의 실재」, 1992.
- 이권영, 「방송매체의 규제완화 정책동인 인식에 관한 연구」, 1993.
- 이상식, 「한국의 정보화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 1993.
- 김상훈, 「홈쇼핑 채널의 운용과 정착화 방안」, 1994.
- 김정탁, 「멀티미디어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적 토대를 위한 연구 - 마셜 맥루한의 미디어론을 중심으로」, 1994.
- 송해룡, 「이동통신과 기술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1994.
- 김대호, 「방송허가제도의 문제점」, 1995.
- 최 영, 「뉴미디어 시대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1995.
- 김상훈, 「멀티미디어 시대의 광고」, 1995.
- 김유정, 「사회적 실재감에 따른 의사교환 과정에 대한 두 매체의 상이한 인식조사: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비교연구」, 1995.
- 윤선희, 「정보화사회의 권력과 커뮤니케이션: 한국의 컴퓨터통신망 정

- 책의 담론분석」, 1995.
- 조재영, 「케이블TV 광고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1995.
- 김정순, 「'정보사회' 담론에 관한 일고찰」, 1996.
- 박성호, 「멀티미디어 온라인 광고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6.
- 박준식, 「언론사의 멀티미디어사업 다각화 전략」, 1996.
- 안동근, 「정보사회에 있어서 뉴미디어의 경영」, 1996.
- 이광석, 「초국적기업의 정보공간 통제전략에 관한 소고」, 1996.
- 윤준수, 「인터넷의 멀티미디어적 특성과 토털미디어 패러다임의 등장」, 1996.
- 정인숙, 「방송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케이블TV 사례를 중심으로」, 1996.
- 초성운, 「정보통신산업의 환경 변화와 선진사업자들의 멀티미디어 산업 진출전략에 대한 연구」, 1996.
- 권혁남 외, 「PC통신 및 인터넷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일상생활의 변화」, 1997.
- 김신동, 「한국의 CATV 및 위성방송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난 국가 개입의 성격」, 1997.
- 문병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존재론」, 1997.
- 윤준수, 「하이퍼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웹: 커뮤니케이션 모델 제안」, 1997.
- 이은우, 「멀티미디어 시대의 자아정체성」, 1997.
- 이현우, 「인터넷과 세계화」, 1997.
- 정 백, 「종이신문의 위기와 전자신문의 성격연구」, 1997.
- 정진홍, 「'몸' 담론과 미디어 그리고 권력」, 1997.
- 주영호, 「디지털화와 방송산업의 전환적 갈등에 관한 연구」, 1997.
- 성동규 외, 「사이버 포르노의 현실적 규제방안 연구」, 1997.
- 윤석민 외, 「다채널화의 진전에 따른 TV 서비스 제공체계 변화 및 그

영향에 관한 연구», 1997.

이영음, 「뉴미디어의 이용과 지식격차」, 1997.

이은우, 「인간 소외의 관점에서 고찰한 장 보드리야르의 매체관」, 1997.

이인희 외, 「빠빠를 통한 대인커뮤니케이션 맥락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내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1997.

초성운, 「Harold A. Innis 사상의 재조명: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1997.

강남준 외, 「Prosumer장비를 이용한 텔레비전 스튜디오 구성방안」, 1998.

라도삼, 「가상공간에 대한 권력-욕망론적 접근」, 1998.

박경탁, 「PC통신광고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1998.

박성철, 「기술위험(technological risks)에 대한 인지와 정보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1998.

윤영철, 「대안적 매체로서의 가상공간」, 1998.

이화진, 「케이블 네트워크 산업 규제와 시장 성과」, 1998.

정진홍,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풀뿌리 투쟁」, 1998.

주영호, 「'정보사회론'과 '위험사회론'의 관계 규정」, 1998.

### 3. 《한국언론학보》

최윤희 외,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이 조직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과 업무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1991.

변동현, 「DBS와 국제커뮤니케이션 양상의 변화 -일본 위성방송의 영향과 대책을 중심으로」, 1992.

김명준, 「탈규제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92.

유의선, 「종합유선방송법제 발전방안 연구: 정책론적 관점에서」, 1994.



- 김명준, 「언론제도 연구의 경향과 과제 -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의 논쟁을 중심으로」, 1994.
- 김현주, 「컴퓨터 통신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95.
- 윤석민, 「우리나라 케이블TV의 초기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매체환경, 공중파TV 이용행태, 케이블TV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1995.
- 윤석민, 「케이블TV의 도입이 TV시청 관련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6.
- 황상재,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의 가능성과 한계 - 언론자유와 규제문제를 중심으로」, 1996.
- 초성운, 「'가치사슬'을 통한 멀티미디어산업 경쟁구조 고찰」, 1996.
- 김택환,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법제 연구 - 민주적 공론 구조를 위하여」, 1996.
- 강상현, 「신문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노동과정의 변화: 전면 CTS 도입 이후의 시점간 비교분석」, 1996.
- 안동근, 「종합유선방송의 문화 채널 경영 - 미국 CBS Cable을 중심으로」, 1996.
- 권호영 외, 「국내 미디어산업의 산업연관 분석: 1980~1993」, 1997.
- 임동욱, 「정보통신혁명과 초국적 정보질서」, 1997.
- 전석호, 「초고속정보망과 국가정보기간화의 과제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7.
- 최 영, 「정보화시대의 제조물책임법 - 무형의 제조물(광고)을 중심으로」, 1997.
- 성동규 외,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1997.
- 윤석민 외, 「다채널화 진전에 따른 TV서비스 제공방식의 변화」, 1997.
- 이수영, 「'공론장'으로서의 한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 공론장의 개념화를 통한 케이블 텔레비전의 행위 측정을 중심으로」, 1997.

#### 4. 《한국방송학보》

- 박기성, 「정보화사회와 개발도상국가의 방송문화정책」, 1990.
- 강태영, 「미래의 방송환경과 수용자: 시청자의 텔레비전 시각」, 1990.
- 김정태,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라디오방송인의 인식조사 연구」, 1990.
- 전석호 외, 「정보환경 변화와 교육방송의 현안」, 1990.
- 송재극, 「남북한 방송기술정책에 관하여」, 1990.
- 안수근, 「일본 위성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연구」, 1990.
- 강대인, 「다매체시대의 편성전략」, 1991.
- 김광수, 「미래 텔레비전 방송의 광고계획」, 1991.
- 유의선,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뉴미디어 정책연구」, 1991.
- 박성호, 「미래방송환경과 삶의 질」, 1991.
- 진용옥, 「한국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기술공학적 대응방안」, 1991.
- 정윤식, 「위성방송 도입과 방송정책」, 1991.
- 정윤식, 「신방송질서와 공공방송 -일본,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1992.
- 정인숙, 「방송정책에 대한 시론적 연구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1992.
- 황 근,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심리천에 관한 연구」, 1993.
- 황상재, 「커뮤니케이션 체제변화와 정책연구의 위상변화」, 1994.
- 김국진, 「케이블TV 법제 비교연구: 한국, 미국, 일본의 케이블TV 법제 비교분석」, 1994.
- 이창근, 「미디어 경쟁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1994.
- 이인희,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관한 연구」, 1995.
- 박천일, 「미국의 국제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의 정치경제적 함의 -방송 및 정보통신사업의 국제적 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1995.

- 조항제, 「BBC 세계시장 확대 전략, 그 의미와 평가」, 1995.
- 송해룡, 「방송환경 변화와 방송 규제, 감독기구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1995.
- 김학천, 「정보전달 기능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 고찰 - 초고속 정보망 구축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1995.
- 고수자, 「독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방송개념 규명과 규제방안 제고」, 1996.
- 장용호, 「방송형 뉴미디어의 비순수공공재 모형」, 1997.
- 조은기, 「케이블TV의 경제적 특성과 규제에 관한 연구」, 1997.
- 박홍수 외, 「유선방송산업의 성장 예측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1997.
- 황상재, 「뉴미디어 상호작용성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탐색 연구」, 1997.

##### 5. <<한국사회와 언론>>

- 강상현, 「국내 '정보화' 정책의 이데올로기 지형: 정책형성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 1992.
- 김형근, 「새로운 영상매체: 뮤직비디오」, 1992.
- 강상현, 「'정보화' 시대의 시민언론운동: 현단계 운동 평가와 미래 전망」, 1993.
- 강상현, 「방송환경 변화와 뉴미디어 수용정책」, 1994.
- 류지석, 「멀티미디어의 성격에 대한 소고」, 1995.
- 고성국, 「지구촌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시민네트워크의 역할」, 1995.
- 강상현, 「지역매체로서의 CATV의 기술적 가능성과 제도적 장애: 현행 법규의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안」, 1995.
- 김성재, 「지자체 선거와 퍼블릭 액세스: 독일과 광주, 전남의 지역언론 제도 비교」, 1995.

- 이효성, 「신문의 미래에 관한 전망」, 1996.
- 박성현, 「앨빈 토플러와 포스트모더니티」, 1996.
- 김성기, 「정보혁명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1997.
- 홍성태, 「사이버공간과 사이버네틱스」, 1997.
- 김주환,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1997.
- 이광석, 「현실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1997.
- 장호순,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권」, 1997.
- 강태완, 「뉴미디어 시대의 매체미학」, 1997.
- 김유경 역, 「역사적·비판적 관점에서 본 인터넷과 미국 커뮤니케이션 정책결정과정」, 1997.
- 강상현 역, 「감시사회: 정보기술과 관료적 사회통제」, 1997.
- 강태완, 「정보사회 미디어 구조의 변화와 미디어 정책」, 1997.
- 김성재, 「영상물 유통시장의 재구조화에 대한 고찰: 아래로부터의 영상물 유통구조 찾기」, 1997.
- 백옥인, 「디지털 경제와 지적 소유권」, 1997.
- 김서중, 「정보화시대의 대응전략으로서 소매체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접근」, 1997.
- 마동훈, 「뉴미디어, 일상생활, 사회이론 -마크 포스터의 포스트철학을 중심으로」, 1997.
- 이만제, 「PC통신내 동호회 문화분석」, 1997.

## 6. 《언론과 사회》

- 강상현, 「'정보사회' 담론의 지형학: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분류와 비교」, 1994.
- 윤석민, 「다채널TV 상황하의 TV뉴스시청 -공중파 TV 뉴스와 24시간

- 다채널TV 뉴스에 대한 시청동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1995.
- 윤선희, 「정보화사회의 권력과 커뮤니케이션: 한국의 컴퓨터통신망 정책의 담론분석」, 1995.
- 강명구, 「대중소비문화와 정보테크놀로지의 사용과 소비」, 1995.
- 이상식, 「케이블TV의 보급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기술 추동과 수요창출을 중심으로」, 1996.
- 김신동, 「한국의 CATV와 위성방송 정책결정 과정에 나타난 국가개입의 성격」, 1997.

#### 7.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 오택섭, 「인터넷 연구의 영역과 현황 및 과제」, 1997.
- 황 근, 「방송, 통신 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1997.
- 방석호,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1997.
- 김기중,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1997.
- 유의선,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저작권 이용 및 침해배상」, 1997.